

마르코 복음서 5장

마귀들과 돼지 떼(마태 8,28-34; 루카 8,26-39)

마태오 복음서 8,28-34 해설 참조.

1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마태오 복음에서는 ‘가다라인들의 지방’으로 표기된다. 이 지역은 이교도들의 땅으로, 마귀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가 이곳에서도 행사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¹⁾

2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3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둘 수가 없었다.

4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5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1) 당시에는 주로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피난처로 이용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덤은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다.²⁾

2) 마태오 복음에서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사납다고만 표현하는데, 마르코는 그 사나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러운 영은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졌음을 드러낸다. 이 더러운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은 하느님이신 예수님뿐이시다.

6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7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8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9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

1)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3쪽, 각주 1 참조.

2)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3-74쪽, 각주 2 참조.

이사 65,4 : 굴 무덤 속에 들어가 앉고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는 자들, 돼지고기를 먹으며 부정한 고기 국물을 제 그릇에 담는 자들이다.

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1) 당시 구마자들은 마귀의 이름을 알면 그것을 제어하는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 2) 이름이 ‘군대’라 함은 마귀 들린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³⁾

10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11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놓아기르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다.

12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13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천 마리쯤 되는 돼지 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 1) 유다인들이 더러운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가 있다는 것은 이교인들이 사는 땅이 더러움을 나타내는 것이다.⁴⁾
- 2) 마태오 복음에서는 ‘많은 돼지 떼’라고 표기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다. 그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음도 내포하고 있다.
- 3) 쫓겨난 마귀는 다른 은신처를 찾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12절).

14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15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16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17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마귀들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였음에도, 사람들은 인간적인 손실만을 생각한다.

18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19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3)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4쪽, 각주 6 참조.
로마 제국에서 ‘군대’는 약 6,000명 정도로 조직되었다.

4)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4쪽, 각주 8 참조.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 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20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마귀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선포한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복음 선포로 이어져야 한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마태 9,18-26; 루카 8,40-56)

마태오 복음서 9,18-26 해설 참조.

21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22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23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24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나하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
 댔다.

- 1) ‘회당장’은 회당에서 거행하는 전례를 이끌고 전례 중의 역할을 분배하며, 회당 건물의 시설과 보수를 책임지는 사람이다.⁵⁾
- 2)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당장’은 존귀한 직분이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며, 예수님께 승복함을 뜻한다.

25 그 가운데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26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27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9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30 예수님께서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31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 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32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5)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5쪽, 각주 17 참조.

33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3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 1) 하혈하는 여자는 더럽고, 그 여자와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도 더러워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⁶⁾
- 2) 치유를 위해 큰 노력을 하였음에도 효과가 없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다. 이 여인의 단순한 믿음의 접촉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힘을 지니신 분이라는 신앙고백이다.
- 3) 하느님이신 분이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35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6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 1)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을 강조하신다. 예수님을 사람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⁷⁾
- 2) 예수님은 증인 셋을 대동하시고 비밀리에 기적을 행하신다.

38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지게 되는 무력함을 나타낸다.

39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6)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5쪽, 각주 18 참조.

레위 15,19 :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에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15,25-26 :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잠자리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 여자가 앉는 물건도, 불결한 기간에 부정하듯, 모두 부정하게 된다.

7)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76쪽, 각주 25 참조.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쿴!”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42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1) 죽음은 자는 것과 같고, 부활은 깨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믿는 이들을 깨우실 것이다.

2)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비웃는다. 그들은 깨어남 곧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3) 함구령을 내리신다.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당신의 소명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